

‘월드컵 범죄’ 선처 없다

법원, 폭력·성추행 등 중형 선고

독일 월드컵 개막 분위기에 휩싸여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경우 대부분 선처를 받지 못했다.

◇폭력·소란은 금물=광주지법은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르자 화물차에 시민 15명을 태우고 질주하던 중 “적재함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며 제지하던 의경에게 폭력을 휘두른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또 거리응원을 마치고 승용차 경적을 울리면서 주행하다 “비좁은 골목으로 차를 몰고 온다”며 편잔을 준 시민을 마구 때린 대학생 전모·채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거리응원 노린 절도·성추행범은 엄벌=서울중앙지법은 2002년 덕수궁 앞에서 한국과 독일의 월드컵 4강전 응원으로 혼잡한 틈을 타 절도를 저지른 최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2002년 6월 “한국팀을 응원하자”며 여고생을 차에 태운 뒤 환적한 곳에서 성추행한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응원 중 부상” 소송도=최모씨는 인천에서 한국팀 승리를 자축하는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도로를 활보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인천지법은 당시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최씨에게 6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월드컵 알바’ 150여종 판박이 스티커 판매 인기

독일 월드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에 11일 현재 등록된 ‘월드컵’ 관련 ‘알바’는 138 건.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에도 이날 현재 150여건의 월드컵 관련 구인공고가 올라와 있다.

가장 많은 것은 응원 판박이 스티커를 판매하는 아르바이트. 판매 알바를 하면서 월드컵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서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급여는 일급으로 1만원 수준. 또 월드컵 응원용품과 응원복 판매, 행사진행 요원, 중계방송 보조원 등도 월드컵 기간 필요한 아르바이트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천국’ 관계자는 “월드컵 알바는 대부분 단기간이기 때문에 일 하기 전에 전화해보거나 직접 방문해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광주·전남 거리 응원 “준비 끝”

경기장·거리·영화관서 “대~ 한민국”

“2002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 다시 한번~” 한국팀의 경기를 어디서 구경할까? 또 한 번의 월드컵 4강 신화에 도전하는 23인의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길거리 응원전이 광주와 전남지역 곳곳에서 열린다. (표)

◇광주=광주시는 13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장소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06 독일 월드컵 토고전 응원축제 ‘Again 2002 Again 광주’를 연다. 광주 MBC와 함께 마련한 이번 축제에는 ▲삼우축구단 사인블 및 붉은 악마 T셔츠 증정 ▲16강 기원 대형 축구공 메시지 ▲여자축구대회 등 11가지 부대행사가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펼쳐진다.

또 오후 8시부터 경기 시작 전까지는 ▲불꽃놀이 400발 ▲레이저 불꽃쇼 ▲록과 국악의 만남 ▲도전 승부차기 내가 슈팅왕 ▲꼭짓점 댄스 경연대회 ▲고싸움 ▲응원전 등 다양한 공연과 시민참여 행사가



13일 한국과 토고전의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전남대 후문 앞 거리. 길거리 응원 축제 안내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려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불꽃놀이·꼭짓점 댄스에 경품도 푸짐 가족·친구들과 함께 4년 전의 감격을

진행된다. 입장권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사, 광주는 행 지점 등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며, 추첨을 통해 프랑스·스위스전 입장권(항공권·숙박권 포함), 휴대전화, 농산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전남대 후문에서도 지역 문화단체인 ‘모란꽃’과 ‘붉은 악마 광주지회’ 주최로 길거리 응원전이 펼쳐진다. 13일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북구청 4거리에서 용봉 4거리까지 약 700m 구간은 차량이 통제되며, 전남대 후문 앞에는 대형스크린(가로 6m×세로 5m) 2개와 40평 규모의 특별무대가 설치된다. 응원에 앞서 ▲길거리 장터 ▲록 페스티벌 ▲길거리 바둑그림 그리기 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도 열린다.

롯데시네마 광주점, CGV 광주·첨단·목포점과 메가박스 광주점 등은 각 방송국과 기술제휴를 통해 생생한 화면과 음질로 독일 현장의 모습을 중계한다. 이들 영화관은 경기에 앞서 한 편의 영화도 상영한다. 단 월드컵 이벤트를 통해 당첨된 회원에게 관

람권이 무료 배포되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야 한다.

광주지하철 상무역과 금남로 4가역 대합실에도 80인치 대형 TV가 설치돼 시민들과 함께하는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남=목포시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토고전이 개최되는 13일 오후 7시부터 유달경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을 펼친다. 이날 행사에는 목포대 체육학과 응원동아리 지도로 꼭짓점댄스 배우기·생활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여수생활체육협의회도 진남체육공원에서 거리응원전을 갖는다. 응원전에는 월드컵 시민가요제와 응원 콘테스트, 경기 응원, 경품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곁들여진다.

이외 순천시(연향동 조흥플라자 광장)와 나주시(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광양시(시청앞 서천생활체육공원) 등 전남도 내 9개 시·군에서 월드컵 기간 동안 다양한 응원행사를 펼쳐 2002 한일월드컵의 감동을 재현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토고전(13일) 광주·전남 월드컵 응원전

광주	장소	시간	비고
광주월드컵경기장		14:00~24:00	싸인볼, 붉은악마 T셔츠 증정, 축하행사, 불꽃놀이 등 추첨용품 경품제 제공
전대후문		13:00~24:00	북구청 4거리-전대후문 차량 통제, 페스티벌 길거리 장터
광주지하철 상무역, 금남로4가역		22:00~24:00	지하철 새벽 1시까지 연정운영, 80인치 대형 TV 설치
CGV 광주점, 목포점 (www.cgv.go.kr)		21:20~24:00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응모, 응원도구 증정, 영화 1편 무료
롯데시네마 (www.lottecinema.co.kr)		21:00~24:00	
메가박스 (www.magabox.co.kr)		19:20~24:00	

전남	장소	시간	비고
목포 유달경기장		19:00~24:00	꼭짓점댄스 배우기, 월드컵 시민가요제, 응원콘테스트 등 배스케인팅, 불꽃놀이
여수 진남체육공원		22:00~24:00	스포츠 댄스 공연, 가야금 공연
순천 연향동 조흥플라자 광장		18:00~24:00	
나주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20:00~24:00	
광양 시청앞 서천생활체육공원		19:00~24:00	꼭짓점댄스 경연
장흥 탐진천변체육공원		21:00~24:00	
강진 국민체육센터		21:30~24:00	
해남 국민광장		19:30~24:00	꼭짓점댄스 경연대회, 국민장기 자랑
진도 헬미광장		18:30~24:00	국민장기 자랑, 댄스 그룹 시연, 공연

광주 일부 시내버스·지하철 연장 운행 한국-토고전 응원...14일 새벽 1시까지

13일 열리는 토고와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응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3개 노선의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연장운행된다. 광주시는 응원전이 펼쳐질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운행하는 ▲22번(월남동~매월동) ▲36번(매월동~소촌 라인아파트) ▲39번(첨단~월드컵경기장 3주차장) 등 시내버스 3개 노선 51대의 운행시간을 14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도 14일 새벽 1시까지 상행 3호·하행 3호 등 지하철을 6회 연장 운행해 시민들의 귀가를 돕기로 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13일 열리는 토고와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응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3개 노선의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연장운행된다. 광주시는 응원전이 펼쳐질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운행하는 ▲22번(월남동~매월동) ▲36번(매월동~소촌 라인아파트) ▲39번(첨단~월드컵경기장 3주차장) 등 시내버스 3개 노선 51대의 운행시간을 14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도 14일 새벽 1시까지 상행 3호·하행 3호 등 지하철을 6회 연장 운행해 시민들의 귀가를 돕기로 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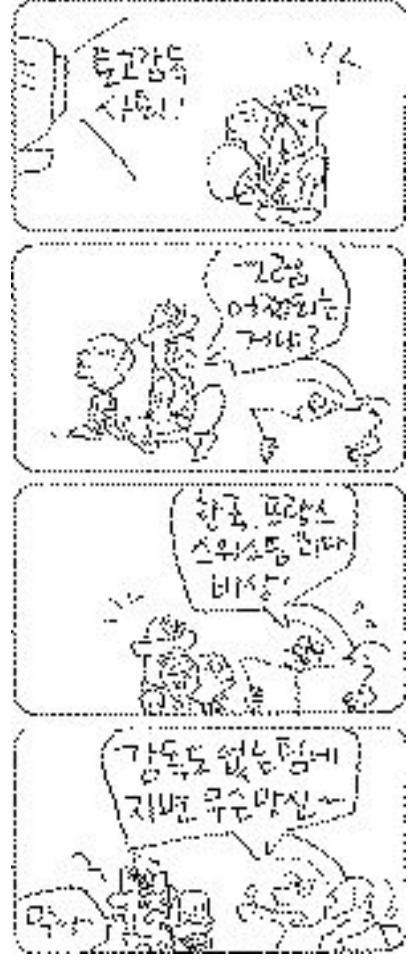
‘거리 응원’ 질서요원·응급차 대기

광주시는 13일 월드컵 거리응원 지원을 위해 월드컵 경기장에 주차 안내 및 질서유도 요원 등 200여명을 배치하고 119구급차와 응급차량 등을 대기시킨다.

전남대 후문에도 소방차와 구급차 각 1대씩과 소방대원 8명이 배치된다. 경찰도 400여명을 투입해 교통 정리와 질서 유지에 나선다.

전남도도 거리응원전 기간 동안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위험물 안전점검과 응급환자 대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예2차(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배우 중 35명만 선발
문의 (062)366-4220

월드컵 가수 미나 “모바일 화보 소송”



○2002 한·일 월드컵의 스타로 가수활동 중인 미나(사진)가 모바일 화보와 관련, 법적 소송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

○미나 소속사 측은 “최근 베트남에서 촬영한 미나의 세미누드 화보 사진 중 홍보 대행사가 사전에 소속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비공정 NG컷 사진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해 계약 위반을 했다”고 밝힌다.

○미나는 “홍보대행사가 마치 월드컵 응원을 위해 누드를 촬영한 것처럼 홍보했고 속옷이 가려져 누드로 오해될 만한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최근 발매한 싱글 ‘플라이 하이’(Fly High)에 삽입된 월드컵송 ‘코리아 아리바’(Korea Ariba)에 맞는 응원 의상을 입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

/이세희기자 lsb54@kwangju.co.kr

홍스페이스 수입가구

hongspace.co.kr
홍스페이스.kr
이태리가구 전문점

- 홍스페이스로 불러 주십시오. 미나리는 홍스페이스입니다.
- 홍스페이스는 홍스페이스가 아니라 홍스페이스입니다.
- 홍스페이스는 홍스페이스입니다.

1층: 생활가구 2층: 4층: 생활가구 5층: 생활가구 차액 100% 제값입니다.
사드 한달만 무료 / 무료운전 서비스 / 신상품 입고는 즉시 10% / 고객회복 정책

대구 동구구동로 230번지 2층 홍스페이스 TEL: 226-7565~7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

시몬스침대

100%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100%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100%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100%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100%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